



남원 동충동, 정월대보름 지신밧기 행사 개최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미라)는 병오년 새해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 해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 행사인 '지신밧기 행사'를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충동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동충동 직능단체 및 농약단, 주민 등 70여 명이 함께한다. 특히 관내 상가와 기관도 동참해 지역 공동체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장단 발전협의회장은 "이웃들이 어울려 웃음과 덕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앞으로도 전통을 이어가며 주민 화합을 다지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미라 동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앞장서고 함께 어엿한 마을 행사를 통해 더욱 생기 있는 동충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철통 대비

남원소방서(대응예방과장 안동춘)가 오는 3월 3일 정월대보름에 달집태우기에서 집단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수 사상자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원소방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열관 대형 거즈 △화상 전용 스프레이 △수액 세트 △모포 등으로 구성된 '화상처치세트'를 비롯한 필수 구급장비의 상태를 꼼꼼히 정비하고 출동 준비를 마쳤다. 특히, 달집태우기 행사가 남원시 관내 각 면 단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특성을 고려해 구조 대책도 강화했다. 안동춘 남원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통해 남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대상 급식지원 강화

김제시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생활 지원을 위해 '2026년 급식 지원 사업' ON답꾸리미와 든든한끼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ON답꾸리미' 사업은 올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며, 상반기에 관내 40여 명의 청소년에게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제공된 꾸러미는 즉석밥과 반찬류, 간식 등을 담아 청소년들이 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든든한끼' 사업은 지역 내 협약 식당 및 반찬가게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업소에서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병원 김명기 교수, 로봇수술 1000례 달성

고난도 암 수술 분야 경쟁력 입증... 환자 안전성과 수술 정밀도 동시 확보 '호평'

전북대학교병원이 중증·암 진료체계를 고도화하며 지역 암 치료의 거점병원으로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비뇨의학과 김명기 교수가 개인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병원 측은 26일 김 교수가 현재까지 총 1,085례의 로봇수술을 집도하며 1,000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병원이 지속적으로 첨단 로봇수술 장비를 확충하고 중증 암 수술 역량을 집중 강화해 온 결과로, 고난도 암 수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전북대병원은 2009년 다빈치 S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Si, Xi, SP 모델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로봇수술 인프라를 확대해왔다. 특히 2024년 Xi, 2025년 SP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며 수술의 정밀도와 적용 범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 같은 기반 아래 병원 전체 로봇수술은 3,000례를 넘어섰고, 비뇨의학과 역시 2,300례를 돌파하며 안정적인 중증 암 수술 체계를 구축했다. 김 교수는 다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첨단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고난도 로봇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왔다.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등 중증 암 수술을 중심으로 전립선절제술, 부분·근치적 신장절제술, 부신절제술, 신장요관절제술, 근치적 방광절



제술, 후복막종양절제술, 골반 장기 탈출증 교정술 등 다양한 고난도 수술을 집도해 왔다. 3차원 고해상도 영상과 정교한 로봇 팔을 활용해 미세 신경과 혈관을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출혈과 합병증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성과 수술 정밀도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명기 교수는 "1,000례 달성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만든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정밀 로봇수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첨단 의료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의 전문성이 결합되며 중증 암 진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증·암 진료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임실군 불철 산불감시원, 전문교육·훈련 실시

임실군은 지난 25~26일 이틀간 불철 산불감시원 71여 명을 대상으로 군청 농민교육장 및 산불대응센터 일원에서 '산불방지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진화 시 원활한 임무수행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불감시원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산불방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강사를 초빙해 △산불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 △산불 신고 및 상황전파 체계 △근무 중 안전사고 예방수칙 △산불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산불진화장비 활용법, 응급처치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임실군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감시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예찰 활동과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정읍 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 뿌리단계에 10개 공동체 선정·협약

정읍시가 지역 내 자생력을 갖춘 마을 공동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6 정읍 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 뿌리 단계에 선정된 10개 공동체와 지난 23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공동체의 성장 가능성을 뿌리, 줄기, 열매의 3단계로 나눠 지원하는 체계적인 육성 사업이다. 첫 출발점인 뿌리단계 공모에서는 공동체의 지속 의지와 사업 모델의 구체성, 시장성, 성장기 발전 가능성 등을 전문가들이 꼼꼼히 심사해 마을공동체 4곳과 소규모 창업공동체 6곳 등 총 10 곳을 최종 발굴했다. 심사 결과 마을공동체 분야에는 칠보면 도산마을, 태인면 상중마을, 상교동 정해마을, 신대마을 양귀마을이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마을 환경 개선과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체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창업공동체 분야로는 로컬보물, 로컬라이브, 라이프클린, 산내 백화주 사업단, 쌍화연가, 어반트립이 선정됐다. 각 팀은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과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시장 검증을 거쳐 수익 구조를 구체화하게 된다. 23일 열린 협약식에서 각 공동체는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임의단체 등록 및 보조금 집행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익혔다. 시는 공동체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계획 고도화 전문 상담(컨설팅), 전문가 조언(멘토링), 회계·실무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11월에 열리는 성과 공유 발표대회와 12월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 이들의 1년간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읍=김대현 기자



김제시, 산불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김제시는 지난 25일 금구면 일원에서 불철 산불재난 대비를 위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림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불방지인력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담당별 임무를 숙달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 투입, 초동 진화 등 현장지휘 본부의 대응조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했다. 또한, 기상 산불 상황을 설정해 주불 진화, 방화선 구축, 주민 대피 등의 과정을 수행하며 산불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불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주간·야간 근무조와 산불감시원 근무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홍보 등을 통해 불철 대형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신풍동 복지기동대, 안전손잡이 설치 봉사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26일 복지기동대(대장 최임관)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낙상 사고의 위험이 컸던 화장실 등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최임관 복지기동대장은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관내 생활이 불편한 이웃을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읍지사	010-3682-6157
		군신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